

글 실 순서

1. 범모하는 중국
2. 중국의 대학, 대학생
3. 세계 속의 외대, 동문들을 만나
4. 중국과 홍콩, 대만과의 통일 문제
5. 석학인터뷰-중국의 문제점
6. 계획개방
7. 중국의 사회주의



인터뷰 - 탕일개(湯一介) 북경대학 철학과 교수를 만나

“관료들의 부정이 중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중국, 사회주의의 새로운 실험장소



중국에도 반정부인사는 있었다. 미국 등 강대국들이 중국의 지식인층에게 사상적 혼란을 심어주기 위해 만들었던 혐의가 같은 반정부인사들도 있고, 서구 사회에서 유학하다가 그들에게 예로되어 서구를 지향하는 반정부인사들도 있다. 물론 자연발생적인 반정부인사들도 있다.

취재진이 만난 탕 교수는 중국에서도 알아주는 저명한 교수다. 이 교수의 의견은 중국 지식인들을 대표하는 생각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중국식 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논란거리를 조망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자.

“관료들의 부정이 중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탕일개 교수는 인터뷰 도중 이 이야기를 수차례 강조했다. 그만금 직접하다는 얘기다.

어느 도시에서는 시장이 직접 부록 관리를 충당시키는 등 부정부패 척결에 정부가 밝혔고 나섰지만 근본적인 치유에는 미봉책이라며 탕 교수는 부정부패를 중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근거로 든 것은 두 가지다.

“중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인치’ 국가다. 중국은 수천 년의 봉건국가의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체질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 권한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 거대한 사람과 법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고 사람에 의해, 연줄에 의해 움직

이는 한 부정은 끝이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말하는 구조적인 문제의 하나는 바로 중국의 전통문화였다.

수 천년 동안 이어온 전통 문화의 인습은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된 이후 몇십년 동안 만들어진 ‘신 전통문화’가 극복하지 못한다는 얘기였다.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법과 원칙보다 학연, 지역, 혈연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탕 교수는 또 ‘공산당 1당 독재’를 부정부패의 구조적 문제로 파악하고 있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로 그의 입장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당은 노동자와 인민대중에게는 확고한 지지력을 갖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경향은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맑스가 사회주의혁명 단계에서 훨씬적인 과정이라고 밝힌 ‘프롤레타리아 독재’까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말을 종합해보면 전통문화의 인습이 뿌리 깊은 중국사회의 내에서 고유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저변 패권으로 권력이 부패하고, 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다. 그의 말속에서 ‘인민민주주의 독재’(중국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불리운다)는 그 말을 듣다 거부하고 정치적 디아볼리를 요구하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개혁개방에 대해서 탕 교수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농촌의 향촌기업, 합자, 개인 기업들이 비교적 빨리 성장하

고 있다. 이들은 개인기업적(자본주의적) 성격이 있어 발전속도가 빠르다. 지금 국영기업들이 거의 다 적자를 내고 있다. 이를들을 경기적으로 합자, 주식회사의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그는 맑스가 ‘사회주의가 발전하면 시장경제(市场经济)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그 형식이 정치적 디아볼화가 되어서는 암울한 것 같아 밝혔다. 그러나 공산당도 “정치개혁은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칠자해 시장경제의 도입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사상개혁의 디아볼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사상개혁의 디아볼과 넘어서 경제적 디아볼로 가는 문제는 중국이 접한 현실적 고민거리라며 중국 사회주의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풀스케우의 말을 참시 인용하도록 한다.

“자신계급의 자유화를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사상개혁을 넘어서 경제적 디아볼로 가는 경로가 되고 있다. 제2회 청원문서에서 흥분에서 벌어진 가능성을 짐작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계급 역할론을 주장하는 중국입니다에서 봄 때 자신계급의 자유화는 사회주의의 포기로 끝날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이 사회주의의 새로운 실험장으로 남아 존재할 것이다.”

탕 교수의 인터뷰를 마치고 속으로 돌아면서 취재진은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한 논란이 얼마나 활발한지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이 이토록 열정을 가지고 만족하여 기라는 사회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증이 더해졌다.

중국특별취재반

① 인 '97 새내기 한마당 및 동아리연합회 해오름식

① 회 서울여성영화제 소개

왕산사랑, 동아리사랑의 디딤돌

“세상의 거짓약속과 싸우렵니다”

문화단신

서울

대학생활의 가장 큰 표지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전에는 있었지만 그래도 공통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동아리’ 활동 일정이다. 그 동아리들이 그들과 새내기들이 함께 할 무대를 마련했다. 바로 용인 배움터에서 열리다 ‘97 새내기 한마당 및 동아리연합회 해오름식이다. 3월 31일(월)부터 4월 2일(수)까지 3일 동안 학생들과 중심으로 배움터 곳곳이 동아리들에 의해 꾸려진다.

우선 ‘상실 전시마당’을 통해 57개 동아리가 학생회관, 신설 주장장, 구 주장장 등에서 자신의 동아리를 소개하는 대지도를 놓고 흥보에 나섰다. 은누리, 죽석, 금연팀, 힘동아리의 비단교, 상영 및 문화공연, 동도문화연구회의 아의 사진전, 그림사랑과 바닥그림 그리기 등의 형식을 통해 각 동아리의 특성을 알게 되었다. 덧붙여 빛모아미 제작한 각 동아리의 활동모습을 담은 영상을 학생회관과 비디오에서 상영함으로서 홍보방식의 다양화를 폐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동아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다. 새내기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배려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그 중에서 ‘새내기 왕산 등반대회’는 단연 유품이다. 이에 대해 동아리연합회 사무

국장 강성희(서학·영어 4학년)은 “왕산 새내기들에게는 매우 화요일에 수업이 없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만 되면 학교를 떠난다. 이번 한마당 기간에 학교 서점과 동아리 사랑을 느끼게 해 줄 행사로써 등반대회를 마련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그리고 등반대회에 참가하는 새내기에게는 기념품과 매클리언이 제공된다고 한다.

한편 행사 마지막날(2일) 학생회관 앞마당에서는 시장만 누리에가 각 동아리의 사진과 희망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시간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이며 해오름식을 참가하는 동아리에게는 ‘역자’도 지원한다고 한다. 강양은 “학생회관 1층 식당이 없어 시민에게 예전에 비해 학생들의 밭길이 풀려졌다. 상설 전시마당이 학생회관을 중심으로 열리는 만큼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마당 축하공연 및 해오름식은 2일(수) 오후 5시다.

‘한시를 마스터피스 연합공연’을 비롯해 ‘손말수술공연’ ‘외비기다 콘서트’ ‘한암 사물놀이’ ‘한사랑 축하비행’ 등 동아리들의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서윤경 기자



경찰(POLEMICS)부분 상영작 중 영화 'Two Friends'의 모습이다.

현재 할리우드 메이저 제작사의 여성제작자 비율은 30% 내외이며, 독립영화의 경우 작가들을 중심으로 여성이거나 그녀의 친구에 이르고 있다. 독립영화인들의 축제인 선댄스영화제 출품작의 절반 정도가 그들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

위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도록 영화계에서 여성들의 힘은 날로 급부상하고 있다. 물론 수의 변화가 질적 향상을 부른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영화제를 통해 또 관객들을 통해 높이 평가받고 있는 여성 감독, 제작자가 늘고 있다. 이런 양상이 예술영화전용관인 ‘동승아트센터’ 등에서 하나의 흐름이 되어 관객들에게 다가간다. 오는 11일(금)부터 17일(목)까지 일주일 동안 열리는 1회 서울여성영화제가 그것이다. 겨우제로 운영을 옮겨 영화제는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는 구호를 내걸고 첫회를 시작하는 흥보답담 현영화에서는 여성의 시선에서 여성의 주도地位에 진행되는 여성영화의 현주소를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영상문화수준과 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국영화계가 여성성력을 기워주는 밀거루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다’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한다.

새�휴먼(NEW CURRENTS), 아시아-태평양영화(ASIAN-PACIFIC CINEMA), 한글영화(KOREAN CINEMA), 집중영화(DEEP FOCUS), 정점(POLEMICS)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하는 현영화 상영을 비롯해 여성단편영화 및 비디오·경선부문의 수상작을 상영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한편 12일(토)부터 16일(수)까지 오후 6시에는 ‘관객의 빛’ 행사를 준비해 한국영화, 독일영화, 아·대영화에 대해 관객의 생각을 들으며 일반 관객의 참여를 열어 놓는 무대도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여성영화제전인문의 일부를 발췌해 놓는다.

“우리는 이제, 고루신 관객, 손수간부대 혹은 아줌마부대라고 평하되여온 여성관객들에게 그에 맞은 소중한 이벤트를 들려줄고 싶은 여성, 나아가 남성관객들과의 연대를 통해 여성주의 문화의 영화를 보고 토론하면서, 여성의 영화와 뱃여온 복합적인 관계를 진지하게 사고하고자 합니다.”

총연회 기자

키노(KINO) 새내기 영화제 개최

서양어대 영화동아리 키노(KINO)에서는 제 2회 새내기 영화제를 지난 26일(수)부터 20일(일)로 까지 개최했다.

‘김독들의 새내기 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영화제에서는 첫날 1시에 ‘개그맨’, 3시에 샬로우 그레이브(Shallow Grave), 5시에는 ‘그 남자 품격’을 상영했으며 둘째날에는 1시에 ‘Tame’, 3시에는 ‘Take The Money & Run’을 상영했다.

미지막 날에는 1시에는 ‘El Matador’, 3시에는 ‘수병위인 종집’을 상영했다. 그리고 5시부터는 키노(KINO) 새내기 모집이 있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데 참가했던 한 학생은 “작년에 이어 두번짼 영화제다. 주제를 정해서 키노 구성원이 보여주고 싶은 영화들을 보여주는 위치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화에 관심이 있고 영화를 배우고 싶은 서양어대 새내기라면 누구라도 찾아오길 바란다”며 비밀을 밝히기도 했다.

제조

동양시멘트
동양매직
동양산업기계
동양토발

식품

동양제과
오리온프리트레이

공 의

서양재단
동양오로스

세계로 미래로~

금 융
동양증권
동양증업금융
동양정보영업
동양부자신박
동양카드
동양알부금증
동양장업부자
에셋코리아부자자문
동양선물
동양파이낸스

무역·건설·유동
동양글로벌
동양시멘트/건설
동양에온
동양미트

국가기간산업에서 금융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21세기를 향한 힘찬질주

국가기간산업으로 텁텁하게 성장해 온
동양그룹이 식품, 금융, 유통서비스,
정보통신 등 다양한
미래첨단산업으로의 변신을 통해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뛰어겁니다.
미래를 먼저 예측하고, 대응해 온 동양그룹 –
이제 미래첨단산업으로의 사업다각화와
앞선 세계화의 실현을 통해
21세기 최우량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정보통신
동양 Systemhouse
오리온 카운트리워크

동양그룹

<http://www.tongyang.co.kr>

5075

